



祝辭

大韓損害保險協會理事長 李 寶 衡

韓國火災保險協會가 本場를 開始한지 不過 月餘에 建立「人災安全點檢」의 创刊號를 發刊하게 된 것은 韓國火災保險協會 任 職員 여러분의 意志와 使命感의 結晶이라 믿으며 保險人의 한 사람으로서 賀으로 이를 贉賀하는 바 입니다

“불”이란 人間이 了却한 人間生活 最上의 道具이며 人間에게는 가장 観近한 牲이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人間生活과는 한 時도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는 必要不可缺한 存在이지만 한편 細心한 注意와 警戒로 敬遠하지 않은 수 없는 存在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不拘하고 “불”에 對한 危險을 느끼기에 앞서 그 必要때문에 太古로부터 人間과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어 왔습니다.

“...2의 불”이라고 말하는 正義의 境遇를 보면, 現代生活에 있어서 보다 根源的인 開拓性을 가지고 絶對的인 位置에 省略하리만큼 日常生活과는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

이와 같이 有益하고 便利하며 없어서는 안될 “불”이지만 이것이 人間이 必要로 하는 限界를 벗어 날 때에는 순식간에 億萬의 財物은 灰燼하며 人命을 앗아가는 等의 横暴로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事故는 언제나 豫告없이 찾아 왔으며 이럴 때마다 人間은 이러한 事故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때 불을 경계하는 마음도 가져 봅니다만 例外없이 事故는 되풀이 되곤 하였습니다. 이제 이와 같은 火災事件들은 人間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政府는 今年初「火災로 因한 災害撫恤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」은 制定 公布하였고, 이 法에 따라 온 國民의 注視와 期待 속에 韓國人災保險協會를 發足시킴으로써 一面으로 人災를 豫防하고 一面 保險加入으로 事後 拯救策은 積極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

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保險人們은 事後 拯救策이라는 分野만은 生存해 왔으나 이제 韓國人災保險協會의誕生과 더불어 保險人的 손으로豫防分野까지 扩張함으로써 國民의 財產保護과 生活安定에 寄與함은勿論, 나아가 國家의인 利益에 크게 功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없이 滿足함을 想할 길 없읍니다

앞으로 韓國火災保險協會와 이를 이끌어 나아갈 여러분들의 科學的인 診斷과 效率的인 施理로서 그 所任은 다할 때 防火設備의 不合理한 點은 是正될 것이며 火災를 防한 後 再建하는 等의 不條理한 根本要支가 完全히 防去됨으로써 밝고 明朗한 社會建設에의 中樞的役割을 하게 될 것은 無庸하면서 「火災安全點檢」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 있기를 祝願하여 나지 않는 바입니다